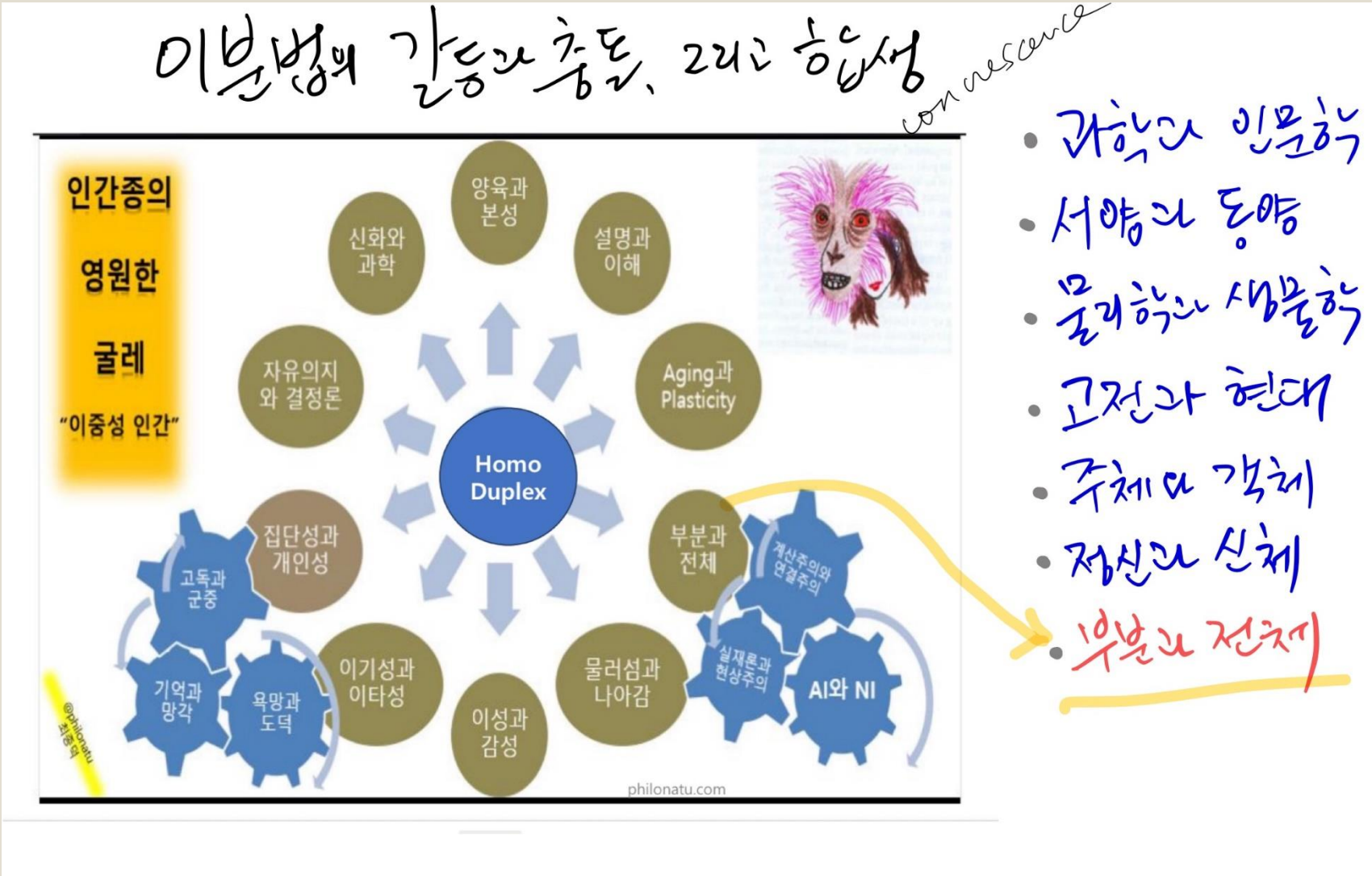
한철연 아카데미 2025

객체와 운동 1강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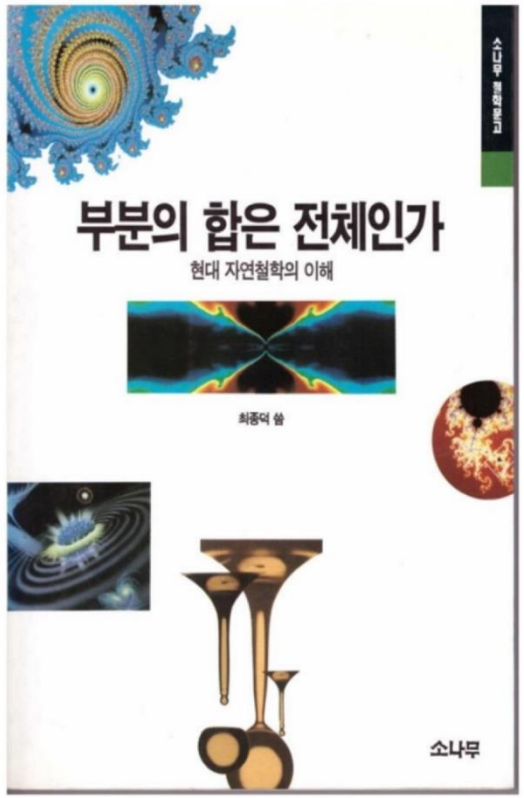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7월 30일



#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 환원주의 부정
- 전체 개념 비판 / 전체주의 / 유기체주의
- extensive 대신 intensive
  (연장) (강도)




-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정원, 유인신 시스템론
-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수학
-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수 있다.)
  모든의 하이퍼 유체

칸트, 하이데거, 하이브레드, 들뢰즈, 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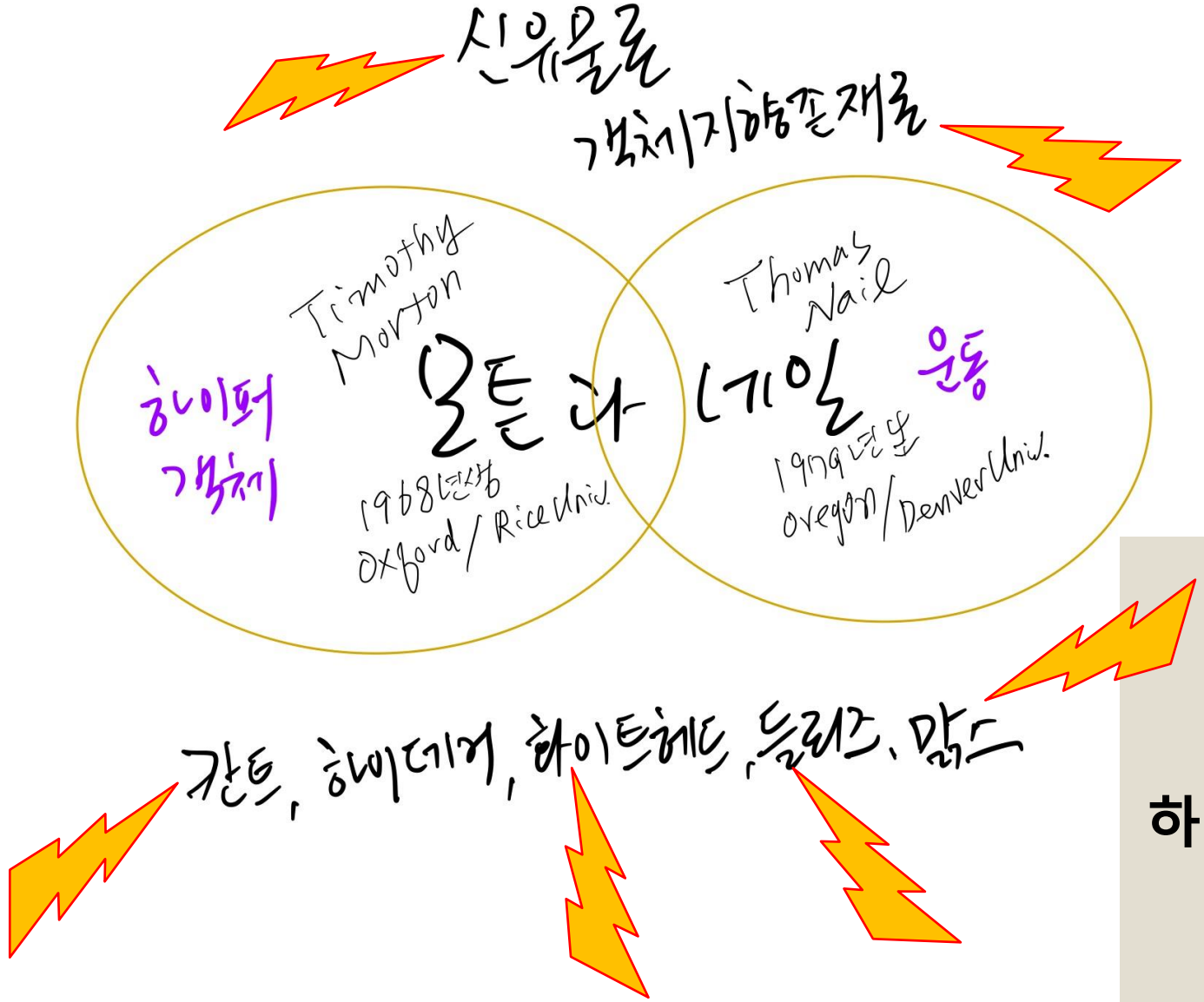
티머시 모튼

하이퍼객체, 저주체의 생태학

<u>권위와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u>

모든,

자연은 없다




**티머시 모튼**

**하이퍼객체, 저주체의 생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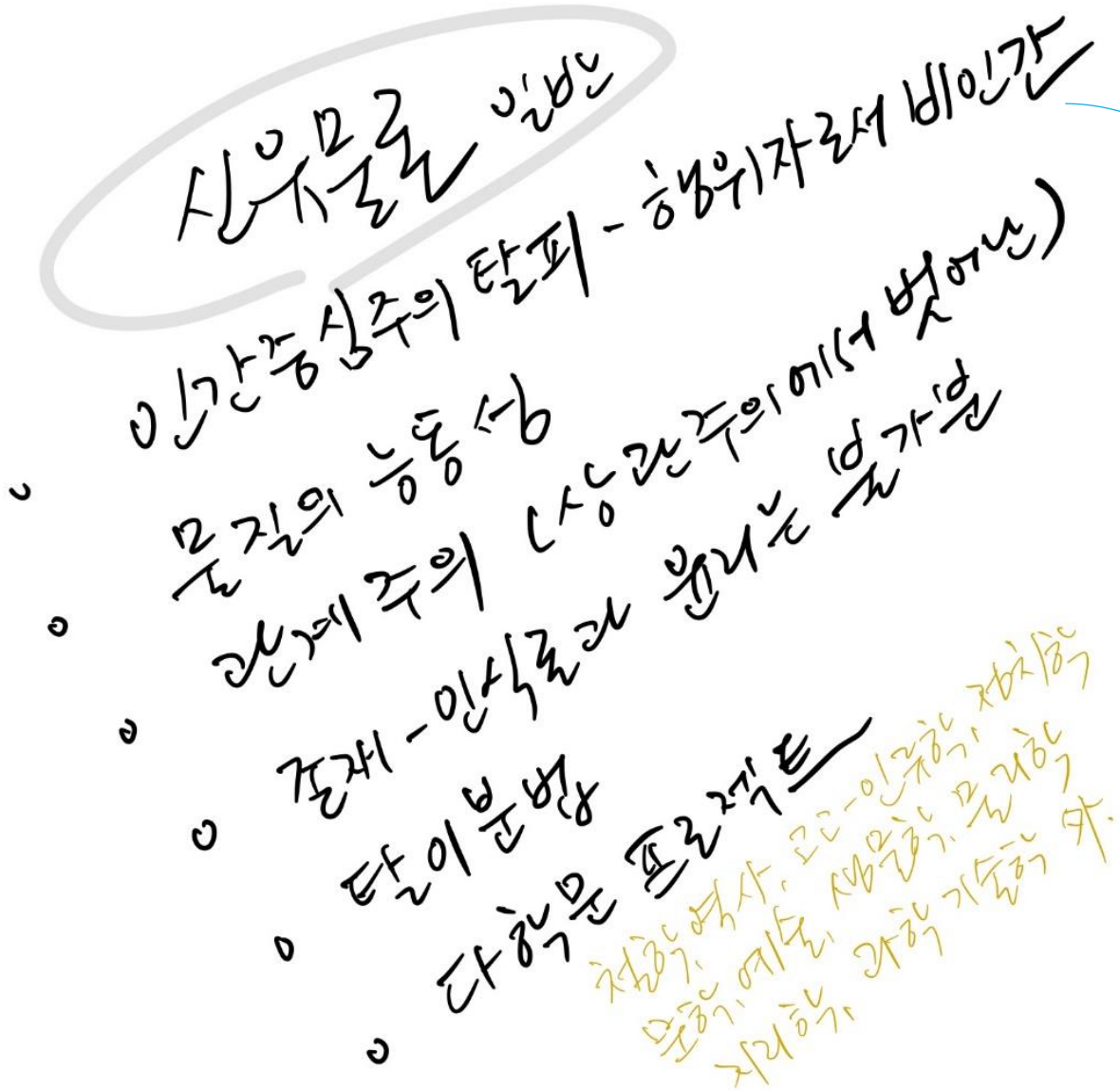
**<u>권위와 규모에</u>**

**<u>길들여지지 않고 놀기</u>**

| | | | | |
|---|---|---|---|---|
| 물질의 스펙트럼 | 욕망의 물질 | 물신주의 유물론 | fetishism | • 소비사회의 물신주의를 일컫는 메타포로서 통속 물질론 |
| | 토대의 물질 | 존재론적 유물론 | 데모크리토스 유물론 | • 신화적 세계해석에서 벗어난 자연주의 세계관 |
| | | | 형이상학적 유물론 | • 유심론과 대비되는 존재론의 태도 |
| | | 과학주의 유물론 | 기계론적 유물론 | • 근대적 의미의 기계론적 유물론<br>• 과학방법론에서 환원주의의 기초 |
| | | | 환원주의 유물론 | |
| | 토대/관계의 물질 | 동력학 유물론 | 변증법 유물론/역사유물론 | • 물질 토대론과 변증 관계론의 세계해석<br>•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역사변동론<br>• 물질과 삶의 일탈declination<br>• 생명의 우연성,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숨겨진 인과로서 복잡계 |
| | 관계의 물질 | |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 | |
| | | | 생태학적 유물론 (레빈스와 르원틴) | |
| | 관계의 물질 | 신유물론 |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이론 | • 로고스, 초월성, 인간중심주의 탈피<br>• 부엽토로서 인간/비인간 공생의 하이브리드<br>•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의 이분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거나 원래 그 사이의 경계가 없었던 얽힘의 관계<br>• 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하는 비인간 수행성 혹은 ANT<br>• 물질의 능동성(그러나 생기론을 경계함) |
| | | | 생기론적 유물론 | |
| | | | 자연-문화 유물론 (de Waal, 해러웨이) | |
| | | | 행위실재론 | |
| | | | 운동 유물론(네일T.Nail) | |
| | 발생의 물질 | 체화주의 | 확장 인지론, 발생유물론 | • 내 안경과 현미경은 내 눈의 연장extended<br>• 인지는 몸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br>• 인지활동은 바디를 통해embodied 의미획득<br>• 주체가 행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화를 통해서 나와 세계가 자기조직된다. |
| | | | 행화주의 | |
| | | | 생멸변화의 불교유물론(바렐라) | |

© philonatu.com

* 참조 - 표 안의 분류와 구별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여기서 비인간이란?

1. 인간 혹은 어느 한 인간으로서 동일성은 없다. - 반실체론 관점
2. 인간도 비인간의 한 부분일 뿐이다.
3. 인간중심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4. 의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 생기론 관점

# 참조: 최종덕의 신유물론 일반강의 동영상입니다.

1. 들뢰즈에서 라투르까지;미분법과 리만기하학 https://youtu.be/J8OF-Pofc7U?si=F5PtiYQvHxJy1EFY
2. 해러웨이 신유물론의 생물학적 기초 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
3. involution, 해러웨이와 들뢰즈 차이 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
4. 해러웨이, 기존 영장류학 비판 https://youtu.be/VUqWI_Bubfc?si=_zntBfIcy1eC7Yc_
5. 캐런 버라드, 양자역학으로 본 얽힘과 결풀림 https://youtu.be/C4Dli8ieqQA?si=9yCggnII8HH38ILP
6. 버라드의 무nothingness와 생성 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
7. 신유물론으로 읽는 화이트헤드 https://youtu.be/_TwpaCKuMSQ?si=xf6wuQgBxDbv-aGf
8. 티모시 모튼, 하이퍼객체와 저주체 https://youtu.be/Wc20Z3taEto?si=3PSmKhbHwIdmY4un
9. 토마스 네일의 운동철학, 그리고 신유물론 시리즈 전체 리뷰 https://youtu.be/b0hjtaGhYzY?si=Rzc3TJ97-1PqNzaC

# 화이트헤드의 강도 intensity, (과정) 목적론

"존재는 그 본성상 가치-강도를 지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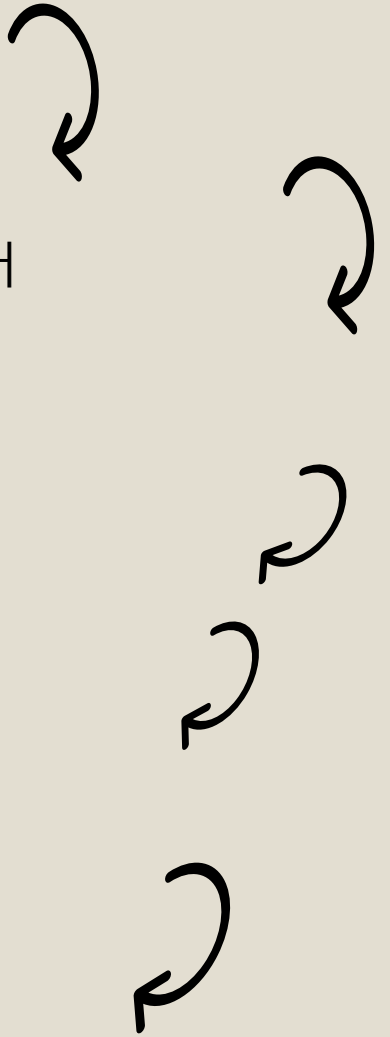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리고 전체를 위해
어떤 가치를 가진다"

"가치-경험"은 "현실성의 각 맥동의 본질적인 본성"

Alfred North Whitehead: Modes of Thought: Lecture 6: Civilized Universe

# 화이트헤드의 부분과 전체

| | |
|---|---|
| **actual entity1 – concrescence** | 부분(다자)의 합생 |
| **oneness** | 전체(유기체, 일자) |
| **superject** | 일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
| **feel, prehension** | 부분들(새로운 다자)의 합생 |
| **another oneness** | 전체(새로운 유기체, 일자) |
| **objectification** | 또 다시 일자의 객체화 |
| **actual occasion, actual entity2** | 이 객체(부분)들의 합생 |
| **prehension** | 또 다른 전체 |
| **oneness** | (일자, 노벨티로서 유기체) |
| **(organic processes)** | |



## 들뢰즈의 “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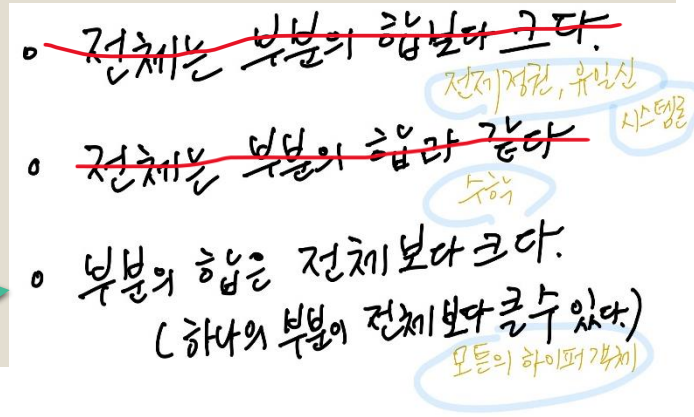
** ‘하나’(중심, 전체성)를 삭제(해체)하여 위계와 중심 그리고 전체성(일자)을 빼면서도 여전히 다수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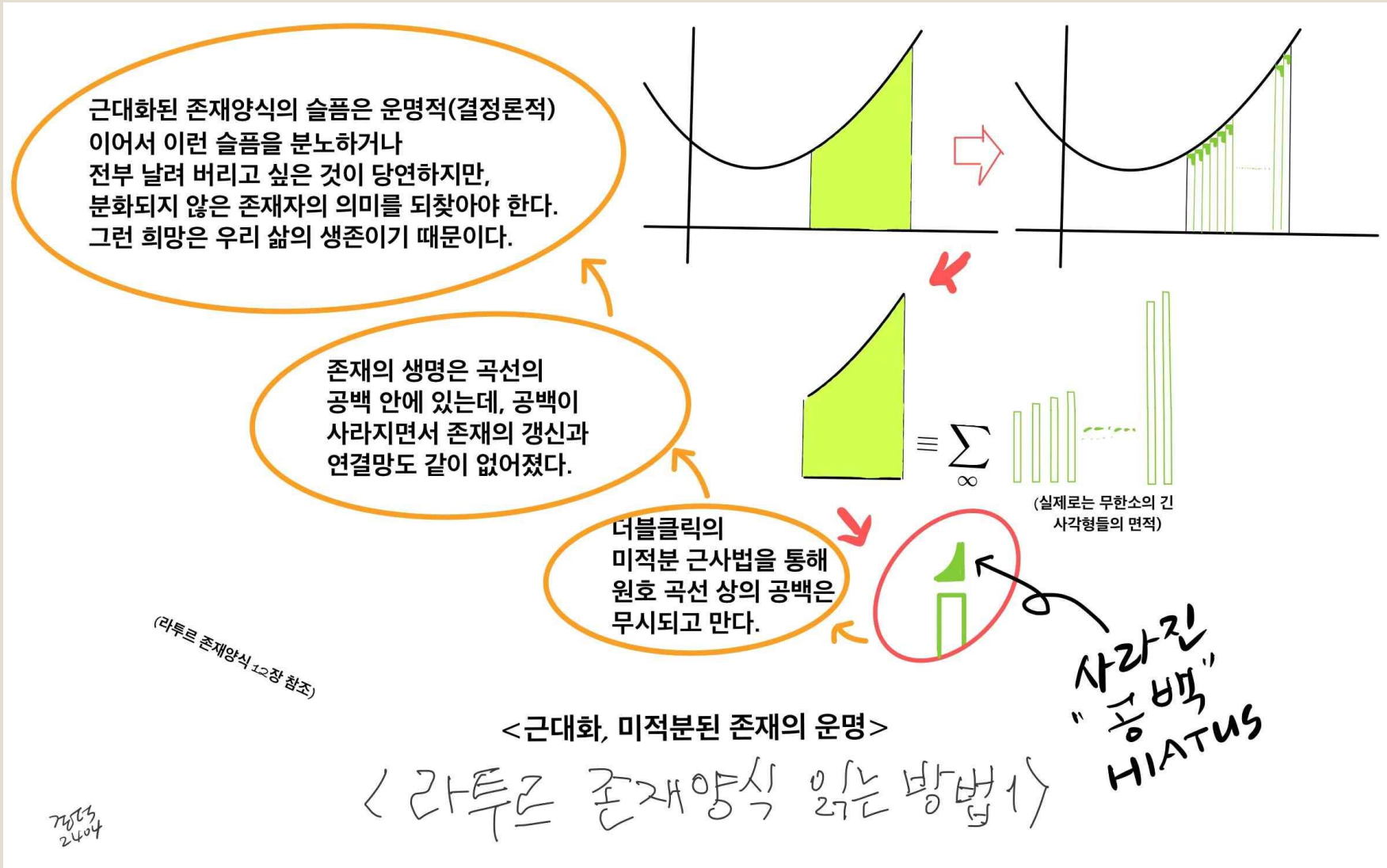
**생성, 욕망, 배치, 리좀, 주체해체, 탈영토화의 이미지

## 모던의 “1+n”

**하나(1)의 파동(현상)에 무한에 가까운 다수(n)의 다른 파동들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반위계적, 집합적, emergent 한 과정성 (하이퍼객체, 161)

**비인간객체, 복잡원인계






〈라투르 존재양식 읽는 방법1〉

# <천개의 고원> 중에서 다중체를 설명하는 문장:

"A multiplicity is, in the most basic sense, a complex structure that does not reference a prior unity. **Multiplicities are not parts of a greater whole** that have been fragmented, and they cannot be considered manifold expressions of a single concept or transcendent unity."

들뢰즈

흄의 연합론associationism
기존 실체론 철학과 달리 관계가 개별항 밖에 있다.
흄에서 관계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인 것 밖에 있다. 관계는 무한히 가능하다.
들뢰즈가 보기에 흄은 EST(있다)에서 ET(그리고)로 대체하는 사유다.

(디알로그 110)

러셀

버틀란트 러셀에서 관계는 개별항 밖에 있지만 실재한다. - 흄의 연합론을 realism으로 재해석

화이트헤드

초기 러셀과 공조했지만 나중에 형이상학으로 전회한 화이트헤드에서 밖에 있는 관계가 사건 안으로 내재된다.

내재성, 생성(되기;Becoming), 비인간 주체, 관계, 경험 개념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들뢰즈는 자신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The Fold: Leibniz and the Baroque)』에서 화이트헤드를 다룸

#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이되기' 개념 (천개의 고원 10장)

- 고정관념 버리기, 위계와 권위 탈피
- 자유로운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지하기
- 퇴행이 아니라 involution
- 생명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회복하기
- 규칙대로 노는 것이 어른이라면 아이들은 놀면서 그안에서 규칙을 만들어간다.

모든의 "놀이"로 연계

들뢰즈의 ‘기계”개념은 “객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객체란 말은 주체에 의해 경험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비슷한 이유로 들뢰즈는 '사물'이라는 용어도 회피하려고 한다고 클라인헤이런브링크는 말한다.

클라인헤이런브링크 2022(김효진역), 62쪽

# OOO와 칸트

Object Oriented Ontology

Graham Harman

transcendental : 인식론 범주,
統覺 unit of apperception → ① 거부

transcendent : 존재론 범주 → ② 거부

- Ding An Sich → 결코 알 수 없다
  thing in itself
- thing, object → 깊이 얽혀있어서 복잡하고 어둡고 심층적이다 → ③ 흡수

G. 하먼과 Timothy 모턴의 객체주의

#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OOO; object-oriented ontology

1968년생

1. 원시적인 물질 덩어리-세계로 상정되어진 파생물이 아니다. 라투르도 이에 동의한다.
2. 객체는 자신의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라투르 동의)
3. 객체는 인간의식에 나타나는 외양으로 환원될 수 없다.
4. 객체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라투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먼은 말한다. 라투르에게 객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연결항이 요청된다. 하먼은 이런 연결항을 국소적 기회원인론이라고 해석한다. 라투르 자신은 이를 "번역"이라고 한다.
5. 객체는 자신이 세계의 여타 객체와 맺고 있는 관계들로 정의(환원)될 수 없다.(422)
6. 객체를 경험하지만 감각자료 덩어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홀처럼)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406-22, 생태적 삶 48

# ○ ○ ○

## object-oriented ontology 객체지향존재론

- 상관주의correlationism에서 관계주의relationism로
- 객체의 '물러나 있음(Withdrawal)':
- 객체의 4중 구조(Fourfold Structure):실재와 감각, 객체와 성질 사이의 구조이며 실재적 객체(RO)는 다른 실재적 객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없으며, 모든 관계는 감각적 객체를 통해서만 간접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하먼은 '대리적 인과성(vicarious causation)'**이라고 했다. 객체와 객체 사이의 영향력은 본질이 아니라 감각적 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객체의 실재는 항상 물러나 있다
-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
- 반환원주의(Anti-reductionism): undermining환원도 안되고 overmining환원도 안된다.

# 하이데거의 인간의 도구존재론에서 탈피한 모튼의 “객체”

- 하이데거의 Zuhendenheit(손 안에 있음, 인간의 목적활동 안에서 도구적 존재) 와 Vorhandenheit(눈앞에 있음, 도구의 존재 자체를 의식, 물질적 대상으로, 도구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는 둘 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모튼은 판단한다.
- Zuhandenheit는 나의 인식능력에서 물러나 있다.withdrawl
- 객체는 인간의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객체와 객체 서로에게 물러나 있다. (생태적 삶, 61-2쪽)

◦ 문학과 문화학 + 생태철학 + 과학

◦ 미국 라이스 대학 영문학과의 리타 시 거피(Rita Shea Guffey Chair) 교수

◦ 문학 속 음식과 몸의 이야기, 생태학, 객체 지향적 존재론, 생물학, 양자물리학 등 초학제적

1994. *Shelley and the Revolution in Taste: The Body and the Natur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Radical Food: The Culture and Politics of Eating and Drinking, 1790-1820* (Routledge)
2000. *The Poetics of Spice: Romantic Consumerism and the Exo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Mary Shelley's Frankenstein: A Routledge Study Guide and Sourcebook* (Routledge)
2002. *Radicalism in British Literary Culture, 1650-18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Cultures of Taste/Theories of Appetite: Eating Romanticism* (Palgrave Macmillan)
2006.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el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Ecology Without Nature: Rethinking Environmental Aesthe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The Ecological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Realist Magic: Objects, Ontology, Causality* (Open Humanities Press)
2013. *Hyperobjects: Philosophy and Ecology after the End of the Worl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2016. *Dark Ecology: For a Logic of Future Coexist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Books)
2018. *Being Ecological* (Pelican Books)
2021. *Spacecraft* (Bloomsbury Academic)
2021. *Hyposubjects: On Becoming Human* (Open Humanities Press, with Dominic Boyer)
2023. *The Stuff of Life:* (Bloomsbury)
2024. *Hell: In Search of a Christian Ec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국내 번역

- 어두운 생태학 2024 / 2016
- 저주체 2024 / 2021
- 하이퍼객체 2024 / 2013
- 실재론적 마술 2023 / 2013
- 생태적 삶Being Ecological 2023 / 2018
- 무에 대한 탐구 2024 / 2015
- 인류 2021 / 2017

Timothy Morton 2010,「Queer Ecology」 In:『PMLA(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125(2)

*Nothing: Three Inquiries in Buddh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h Marcus Boon and Eric Cazdyn)

# “유기체론은 생태적이지 않다.” (모튼의 퀴어 생태학)

- 많은 환경주의는 (시스템론은 더 그렇지만) 유기체적이라고 한다. 그런 전체론적 유기체주의는 권위주의적 남성주의에 너무 자주 순응해왔다.
- 전체론적 유기체 형태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론적 유기체론organicism은 생태적이지 않다. (Morton 2010)
- 전체론적 유기체주의의 세계는 마음에 부합하고 마음은 세계에 부합한다는 사유는 목적론의 한 형태다.
- 상호연결된 생명의 그물망은 세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물망 이론은 유기체에서 벗어나 있지만 동일 수준에 놓인 대안이 아니다.
- 일신교적 종교나 전제주의 권력 역시 그 전체는 항상 부분들의 합보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전체를 외파적 전체explosive holism 라고 한다. (어두운 생태학, 120)

Timothy Morton 2010, 「Queer Ecology」 In: 『PMLA(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25(2): 273-282.

◦ 강도에 해당하는 내파성

◦ Implosive : “외파적”(explosive)에 대비되는 개념

#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의 사례

- 유기체이론의 유기체,  체계론의 체계, 자본주의 국가, 독재국가, 영주권력, 가이아, 종교,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 "산업자본주의는 맑스에 의해 산업기계들의 창발적 속성으로 이론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가 신과 같이 항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턴 2017, 291)
- 일신교의 신은 외파적으로 부분들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신은 부분보다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석기 이후 왕은 우리보다 크고 중요했다. 그러나 모튼에서 왕이나 신은 부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모튼2023, 120) 이런 점에서 신을 수많은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ies) 중의 하나로 간주했던 화이트헤드 존재론과 의미를 같이 한다.

# Timothy Morton 모튼의 부분과 전체

1. 부분의 자기 존재성 subscendence
2. 부분은 전체를 넘어서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작다.
3. 부분 하나가 자기의 개별적 특성을 갖는다. 객체는 더 작은 객체로 환원되지 않으며 더 큰 객체로 사라질 수도 없다. (하이퍼객체, 236)
4.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존재라서 하나의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5. 부분들의 "비전체"적인(비-총체, 집산적인, nonwhole) 얽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 -즉 비전제는 전체론이나 환원주의가 아니다
6. 부분은 단순한 전체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전체의 논리를 초과하고 잉여를 가지는 자기-존재적인 실재

# 모튼의 부분과 전체

1. 전체는 부분을 저월하면서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는 기계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은 똑같이 실재적이다. 전체가 그 부분의 합보다 더 작다는 것이다. 체계론이나 전체주의 혹은 유기체론과 다르다.
2. 그렇다고 해서 부분들이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조장하는 반전체론적 환원주의(혹은 개체주의적 공리주의)이다. 우리에게는 약한 (내파적) 전체론이 필요하다.(모턴2017, 166)
3. 인류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작다
4.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개별 시간적인 부분들의 사건들도 그것의  연속이 모여 전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모튼의 공생적 실재symbiotic real, 연대, ecocommunism

- 공통성 없는 공동체
- 외파적 전체가 아니라 내파적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작은 전체이다.
- 존재자들의 "연대"solidarity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공생적 실재, 그 자체의 현상학"이다. (<인류>(한국어판 17쪽)
- 현실reality과 실재the real 사이에 균열된 단절severing 대신 연대solidarity로
- 생태공산주의(Ecocommunism)로의 확장: 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행성적 공산주의(planetary communism), 즉 '생태공산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인류>2장)

# 모튼, 비인간중심의 인류humankind

- 인류란 백인 남성이라는 관습적 본질에서 벗어나 공생적 실재의 존재자로서 너와 나 혹은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인간 존재자이다. 이를 생태적 대명사라고 모튼은 말한다. 모튼이 말하는 humankind 는 human itself 와 정반대 개념이다.(Morton 2017, 3)
- 비인간 존재에 대하여 친절함(kindness)'과 '연대(solidarity)'를 형성하는 새로운 인류가 humankind이다. 새로운 인류는 종(species) 개념을 넘어서는 더 넓은 현실 이해를 포함한다.
-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멸종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인류의 이익과 대립한다.(모턴2017, 243)

# 지휘자 모델 부정

## 전체, 통제자, 관리자로서 뇌는 없다.

- 강속구를 치는 야구선수의 타격능력
- 컵쌓기 숙련된 소년과 신경과학자 David Eagleman의 컵쌓기 시합 - 두 사람 모두 뇌스캐너에 연결한 채 시합 - 이 글만의 뇌가 상당히 작동하는데도 뇌활동이 거의 작동하지 않은 소년에게 크게 졌다. 속도전 행동은 머리가 아닌 몸이 한다. 뇌가 몸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자논리 혹은 지휘자 모델이 적용될 수 없다.  (모튼 2023, 146-7)
- 몸은 나의 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생명체 DNA발현(표현형 발현)은 생명개체로 제한되지 않고 생존과 번식을 위한 환경에까지 연결된다.(모튼이 든 사례로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표현형은 거미 다리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에까지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도 (인간만이 아닌) 세균의 표현형이다. (모튼 2023, 248)

# 외파적 전체론

- 자본주의는 외파적 전체론에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Morton 2017, 22)
- 사회진화론
- 파시즘: 다름과 이질성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깃발 아래 묶어 꿰매어 놓으려 한다
- 단절이란 억지로 꿰매어 붙이기 "The Severing consists precisely in the stitching-together itself"이며, 전체론은 이런 붙이기의 연속이다.
- 죄와 유혹 그리고 악마로서 악의 근원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타락의 서사fall narratives로 기반된 종교는 전형적인 꿰매어 붙이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Morton 2017, 23) 부분들의 합보다 큰 전체의 근거가 바로 서구 종교의 관리모델이라고 속삭인다. (Morton 2017, 23)
- 현존의 형이상학이란: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으로, 존재의 본질(essence)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일 전체라고 가정하는 사고방식  (Morton 2017, 26)

# 대문자 생명, 선전문구로 왜곡된 생명에서 진짜 생명으로

1. 대문자 생명은 실제 생명체에게 적대적이다. 예를 들어 '생명의 존엄성', '자연 보호', '생태계 보전'과 같이 거대하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때의 생명은 '대문자 생명'의 개념이며,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생명체(actual beings)'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모턴은 말한다.

2. '대문자 생명'은 실체 존재론(substance ontology)에 있다.

3. 실체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이 외양 아래와 너머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현상(외양) 뒤에 숨겨진, 더 근원적이고 '진정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류> 1장)

# 이념화(관념화; 계량화)된 자연으로서 환경

자연의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주의가 치안을 유지하는 그 경계와 유사한 내부-외부 구조에 기반한다. (Ecology 19, 25, 40, 52–54, 63–64, 67, 78; “Ecologocentrism”)

이성애중심의 자연주의 - 영장류학자 드발은 동성애중심의 자연이 실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틀러와 비교)

생명은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거나 중앙집중형 권위적인 게 아니라 파국적이고 괴물 같으며 비전체론적이면서 탈구되어있다.

# 어두운 생태학

- '자연' 개념의 해체: 자연 없는 생태학(낭만적 자연 개념이나 현수막 환경보호주의 거부)
- 인간-비인간의 연결성 강조
- 불편한 하이퍼객체(Hyperobjects)를 인정하고 직시하기
- 절망과 우울을 회피하지 않고, 우울을 통한 생태적 알아차림
- '범죄에 연루된 형사' 비유
- 동등한 존재로서의 객체들의 공존

# 퀴어 생태학으로의 전환하는 과도기적 양상

# transitional mode이 곧 어두운 생태학이다

자연에 대한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 상호연결된 생명체의 좀비 같은 특징을 인정하기

‘심층생태학’이 깊이와 진정성으로 은유된다면,

‘어두운 생태학’은 깊지만 아이러니하고 욕망을 인정한다

들뢰즈는 유기적organique 이라는 단어를 비판한다. 유기체는 생명을 가두고 있다.
(감각의 논리)

# 생태학적 각성 (하이퍼객체, 262쪽)

- 생명, 환경, 자연의 추상적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고 '하이퍼객체 ' 를 직시할 때 불편하고 생소하며 거북하기까지 한다.  이런 uncanny valley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각성'이다.
- '환경', '세계', '생태 시스템', 심지어 '지구'까지도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전체' 개념은 환상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태학적 각성이다.
- 이런 개념은 인지적 편의를 위한 추상화이며 아픈 데 말고 환성의 건강한 데(인종)만 찾는 차별주의/인종주의적 접근이다.
- 실제로는 수많은 개별 '객체'들의 예측 불가능한 '얽힘'만이 존재한다.
- 모든 존재자(인간, 비인간, 생명, 비생명)들은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지닌다. 우리는 지구를 특별히 신성시하거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재단할 수 없다.

# 매혹의 무지개에서 눈을 뜨고 처절한 납골당을 직시하기

“세계가 없다면 자연도 없다. 세계가 없다면 생명도 없다. 자연과 생명이라는 특권 서클charmed circle 바깥에 납골당charnel ground이 존재한다. 그곳은 삶과 죽음, 삶-속-죽음, 죽음-속-삶의 장소이자 좀비, [바이러스보다 작은] 바이로이드viroids, 정크 DNA, 유령, 규산염, 청산가리, 방사선, 사악한 힘, 오염 물질이 있는 완전히 죽지 않은 장소다. 내가 생태학적 각성에 저항하는 것은 납골당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 (하이퍼객체, 2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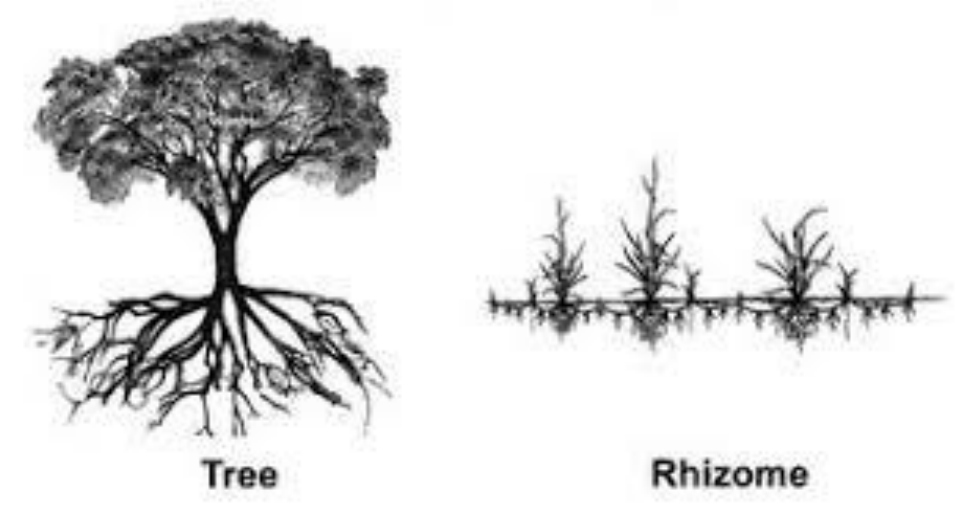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의 로지스틱스 대신에 모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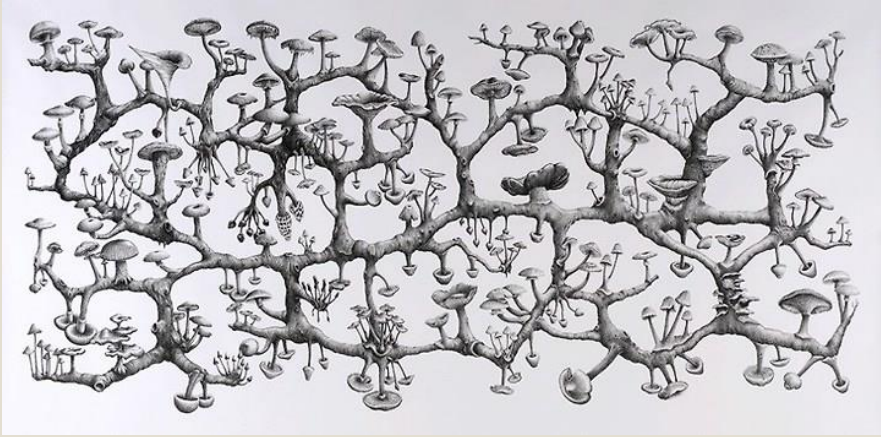
- '존재론적 이질성(Ontological Asymmetry)'의 인정: 반중심, 반위계, 서로 영향
- '물러서 있음(Withdrawal)'의 직시: 객체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 연결망(Mesh)' 속에서의 공존: 인간-자연의 복잡한 생태적 '연결망' 속에서 겸손하고 윤리적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색
- '어두운 생태학'의 수용: 절망, 우울에 마주하여 불편한 진실과 예측 불가능성을 직시하는 '어두운' 태도

# 모튼의 그물망

그물망은 환경주의("생명의 그물")나 포스트모던 이론이 애정하는 많은 유기적 은유처럼 부드럽고 물렁하지 않다.

추정컨대 비계층적이기 때문에 "수목적인" 형태보다 선호되는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리좀과 같은 아이디어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Morton, Ecology 52–53, 107–09)



# 모턴이 지적한 거대 가속 Great Acceleration

1784년 제임스 왓트의 증기기관 이후 지구 표층에 탄소가 축적되었듯이

인류세 지구는 1945년 이후 방사능 물질로 퇴적된 지질층을 만들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거대가속이라고 했다.

(모튼 202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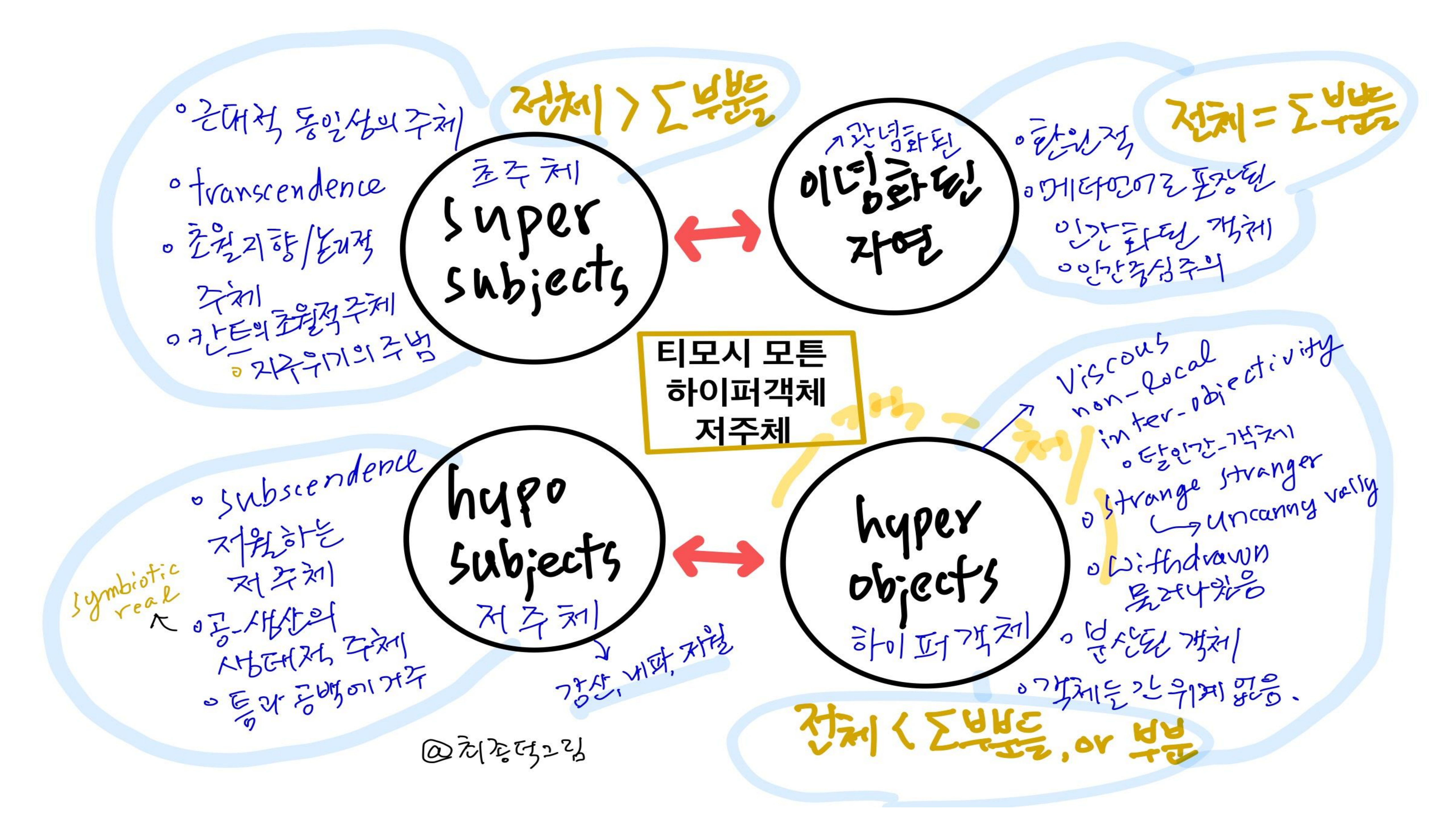
# 한철연 아카데미 2025

## 모튼의 하이퍼객체 2부

# 우울한 지구에서 탈출하려면?

최종덕(philonatu.com)

2025년 8월 6일



티모시 모튼
하이퍼객체
저주체
super subjects
초주체
전체 > Σ부분들
◦ 근대적 동일성의 주체
◦ transcendence
◦ 초월지향/본래적 주체
◦ 칸트의 초월적 주체
◦ 자주위기의 주범
이념화된 자연
→관념화된
전체 = Σ부분들
◦ 환원적
◦ 메타언어로 포장된 인간화된 객체
◦ 인간중심주의
hypo subjects
저주체
◦ subscendence
저월하는 저주체
◦ 공-생산의 상대적 주체
◦ 틈과 공백에 거주
symbiotic real
감산, 내파, 저월
hyper objects
하이퍼객체
객-체
Viscous
non-local
inter-objectivity
◦ 탈인간-객체
◦ strange stranger
→ uncanny vally
◦ withdrawn
물러나있음
◦ 분산된 객체
◦ 객체들간 위계 없음.
전체 < Σ부분들, or 부분
@최종덕그림

# 하이퍼객체: viscous, non-local, interobjectively

- 비인간주의 + OOO
- 생활세계계 속에 침투된 실재
- deep-time에 걸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지구온난화처럼 직접 볼 수 없고 일부만 인식된다.
- 뒤로 물러나 있기withdrawn 때문에 기이하고 낯설게 여겨진다.strange stranger
- 메타언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매타언어는 화이트헤드가 비판한 근대의 추상화된 1차성질에 해당)
- 인간은 객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40)
- 비환원적이어서 실재들 사이의 위계나 우위성은 없다.(44)

# 하이퍼객체의 viscous 특성

- 하이퍼객체는 agents다.(61)
- 광섬유케이블처럼 그 내부에 심대한 비가시적 인과관계가 흐른다는 점에서 하이퍼객체는 악마적이다(62)
- 끈적거림, 끈적이는 꿀 단지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 그리고 손이 꿀에 녹아내리는 느낌, 마치 잼에 빠져 익사한 말벌처럼. 권력이 빠져죽는 느낌.(65)
- 그 끈적거림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재론적으로 꺼내주지 못한다.(77)
-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인간)도 역시 장비(apparatus)의 한 부분(79)

# 하이퍼객체의 non-locality 특성

- 몬산토 제초제 roundup 로 키운 농산물(유전자조작농산물)은 세계로 퍼져나가, 그 직접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어서 객체의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는 몬산토와 그들의 과학신봉자는 말한다.
- 양자역학의 양자는 실재 객체다(real object) 하나의 현상이 실재다(84) 현상은 하나의 불연속적 유닛으로(discrete units), 이 spooky한 현상을 보여주는 EPR 실험은 비국소성의 전형적인 사례다.(90-92) 오히려 국소성이 추상적 산물이다(103)
- 접힘과 펼쳐짐 – 전자는 실재하지만 통계적인 실행perfomance로만 드러날 뿐이다.(96)

# 하이퍼객체의 interobjectivity 특성

- 사물 앞, 사물 사이에 놓인 심연은 상호객체성의 특징이다.
- 상호주체성은 상호객체성이라는 배위공간의 한 구역(부분)일 뿐이다.(172) –급진적 비대칭성(이성이나 공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객체성)
-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국소적 상호객체성의 심대한 mesh 가 겉으로 드러나 하나의 instance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 하나가 바로 국소적이고 인간중심적 상호주체성일 뿐이다.(172)
- 상호객체성의 시스템이 mesh라고 한다(173) 마음도 그 사례다.

# mesh

- 메시는 공존하는 사물들의 창발적 속성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하이퍼 객체 265)
- 마찬가지로 유기체는 그 부분들의 기관과 세포등에서 창발된 것이지 유기체가 있어서 기관과 세포의 기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오히려 국민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국가가 창발되는 것이다.

# 상호객체성 사례, 공룡발자국, 우주배경복사

- 공룡은 6천만 년 전 멸종했지만 바위-인간-공룡-공룡지식 확장이라는 '사이'에서 감각적 연결로 맺어진 상호객체이다.(181)
- 공룡 발자국은 공룡이 남긴 흔적이며 우주배경복사는 우주대폭발의 흔적이다. 이 흔적은 하이퍼객체의 흔적이다. 흔적은 인과의 기호signs of causality이다. 원인과 기호 사이의 차이를 지운다. (186)
- 과거의 '공룡 발자국'과 같은 구체적인 흔적조차도,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배경복사'(2.7캘빈)와 같은 '하이퍼객체'의 '흔적'이자 '영향'의 일부이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자들이 거대한 초객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하이퍼객체의 인과성

- 선형적 인과는 더 이상 안통한다
- 원인과 결과사이가 너무 멀고 복잡하여 인간의 인식 밖에 있다.(인과적 역설이라고 모턴은 표현한다)

# 하이퍼객체의 전모를 다 알 수 없다.

## 모튼의 “기입”사건 inscription events

- 라투르의 “기입” 개념을 수용
- MP3 혹은 JPEG 등의 디지털 신호를 제작할 때, 아날로그 원형에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면서 디지털로 표현된다.
- 디지털 표현은 아날로그 원형을 다 표현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 객체를 표현하는 기입은 “지표적 기호 " 의 한계를 갖는다고 모턴은 말한다.
- 이 한계, 지표적 기호와 객체 사이의 어긋남을 하이데거 표현을 따라 “파열”rift이라고 한다.(외양과 자체 사이의 틈)

(하이퍼객체, 163-4)

# 객체— 감각 객체와 실재 객체

- 객체에는 상위객체, 하위객체가 없다. (하이퍼객체, 237)
- 실재 개체는 withdrawn 되어 있어서 다른 객체(인간 포함)에게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 객체는 다른 객체와의 관계로 나타나고, 감각 객체의 외양이다.
- 감각객체와 실재객체는 현상과 본질의 차이와 비슷하다. 실재가 감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창발적이다. (하이퍼객체, 240)
- 감각개체와 실재개체 사이의 틈을 인정하고 객체들의 고유한 실재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

# 사례: 하이퍼객체를 무시한 원자 사제단

- 모턴에게 "원자 사제단"은 하이퍼객체의 거대함과 불가능한 관리에 대한 **진정한 직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의 산물**
- "핵 폐기물은 먼지로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는" 하이퍼객체의 특질을 역설적으로 표현

# 실재와 인간의 오만

- 핵물질(폐기물), 지구온난화는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실재 객체다.
- 낭만적인 자연보다 더 자연적인 실재성을 갖는다.
- 문제는 이런 실재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데 있다.
-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실재를 인간이 결국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구온난화는 초저속으로 터지는 핵폭탄”

(하이퍼객체, 254쪽)

| 기존 수감자의 딜레마 | 모턴의 하이퍼객체 딜레마 |
| --- | --- |
| 행위 | 행위 |
| 침묵 (협력) | 발설 (협력) |
| 자백 (배신) | 침묵 (배신) |
| 결과 | 결과 |
| 가벼운 형벌 (최선) | 희생과 불편함 감수 → 파국 감소 |
| 무거운 형벌 (최악) | 이익 추구 → 파국 도래 (최악) |

#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 도래자:

- 예측 불가능한 낯선 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개념 데리다의 '환대를 모던은 하이퍼객체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태도로 설명한다.
- **낯선 미래에 대한 환대:** 하이퍼객체가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기이한 낯선 것'. 우리는 이 낯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처럼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중시.
- **"미래의 당신"에 대한 환대:** 하이퍼객체의 미래는 나와 완전히 분리된 타인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나'. 데리다의 윤리학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나와, 그 미래에 존재할 모든 존재자들에게 조건 없는 환대를 베푸는 것**을 강조.

# 초주체 supersubjects

- 하이퍼객체 시대로 이끈 주체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이퍼객체 시대의 동반자로 될 수 없는 주체
- 전형적으로 백인, 남성이고 북부의 사람이고, 영양상태가 좋은 근대적 인간으로 은유됨
- 초월적 형이상학과 근대인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나아가 전체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주도했던 주체
- **'초주체성(Superscendence)'**은 앞서 설명한 **'하이퍼객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하고 나르시시즘적인 태도**

# 초주체에서 저주체로

초주체super-subject가 초월자transcendence에 대한 주체라면,

저주체hypo-subjects는 저월자subscendence로 저월하는 주체

# 저주체 hyposubjects

- 인류세 이전부터 살던 지구인
- 하이퍼객체 환경과 마찬가지로, 저주체 또한 다면적이고 다원적이며, 아직-아님이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며, 부분이 전체합보다 크다.
- 페미니즘적이고, 반민족자본주의적이며, 다인종적이고, 퀴어적이며, 생태적이 고, 트랜스휴먼이자 인트라휴먼.
- 저주체는 틈과 비어있음에 거주한다. (예: 탄소 격자[그리드] 생활과의 연결을 끊고, 비축된 에너지 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해킹하고 재분배한다)
- 지금은 초월적 초주체가 지구를 괴롭히고 있지만, 미래는 저주체의 것.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저주체로서 다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저주체, 19-26쪽)

# 저주체 hyposubjects: 감산적, 내파적, 저월적

✓**감산적(subtractive):** 더 많은 소유와 증대하려는 증가적additive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를 빼고 욕망을 줄이는 길

✓**내파적(implosive):** 외부 세계를 계몽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우리의 의지를 폭발적(explosive)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중심해체 행로로서 내부로 '붕괴'하거나 '수축'하는 길

✓**저월적(subscendence):** 군림하고 통제와 초월의 초월superscendence 태도가 아니라 작은 부분으로서 '아래 ' 의 타자들과 수평적이고 겸손하게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길

# 저월 subscendence

- "저월(subscendence)"은 어떤 존재나 사물의 본질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이나 '기능'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침잠'하거나 '숨겨져' 있음으로써 그 '현상'을 '넘어서는' 현상
- 사물의 '물질성'이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나 인식보다 더 강력하고 본질적이다.
- '위로 올라가는' 초월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초월. 여기서 말하는 '아래'는 더 물질적이고, 때로는 더 깨지기 쉽거나,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의미
-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객체 자체의 심오하고 실재적 방식을 인정

# 하마르티아(Hamartia) (저주체, 33)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의 '결함'이나 '과오'를 모르고 우리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함

-하마르티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먹이사슬의 정점이 있지만 정점이 있는 것이 외롭고 힘든 상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위치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고, 힘든 상황(예: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역설

-이 고독감과 힘듦이 바로 우리의 나르시시즘에 상처를 주는 경험

# 나르시시즘의 역설

- 우리는 지금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오직 우리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는 모순적인 나르시시즘의 애착에 빠져있다.
- 인류가 자신에게 가진 거대하고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 자체도 마치 기후 변화처럼 거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하이퍼객체 ' 다.

# 나르시시즘과 화해 (저주체, 31-5)

• 하이퍼객체를 저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오도된 방법이‘나르시시즘적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는 생각이다.

•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오히려 타자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피드백 고리(성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이 과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타자와 관계 맺는 '나'라는 주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 하이퍼객체 윤리학, deep time에 걸린 죄수의 딜렘마

- 초객체에 갇힌 '현재의 나'와 '미래의 누군가'를 두 죄수에 비유하여 현재의 나와 미래의 누구는 서로 핵방사능이라는 초객체에 의해 서로 얽혀 있다.
- 현재 세대가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배신' 행위와 같으며, 이는 결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심각한 파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 최적의 선택은 '다른 수감자(미래 세대)의 안위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
- 단기 사익 추구 대신, 상호 협력과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선택

(하이퍼객체 2부 3장)

모튼의 자본주의 비판:

모튼은 주식 거래 지배 알고리즘의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들은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타일이다.  자본주의 교환 시스템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식/자본 알고리즘에 갇혀 있어서 실제로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마치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악몽'과 같다는 강력한 비유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정체성과 무의미함을 비판한다. 효율과 속도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며 새로운 생성이나 진정한 진보 없이 맴돌고 있다는 의미다. (Morton 2017, 17)

# 모튼의 공생적 실재symbiotic real, 연대, ecocommunism

- 공통성 없는 공동체
- 외파적 전체가 아니라 내파적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작은 전체이다.
- 존재자들의 "연대"solidarity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공생적 실재, 그 자체의 현상학"이다.(<인류>(한국어판 17쪽)
- 현실reality과 실재the real 사이에 균열된 단절severing 대신 연대solidarity로
- 생태공산주의(Ecocommunism)로의 확장: 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행성적 공산주의(planetary communism), 즉 '생태공산주의'의 정치적 가능성(<인류>2장)

# 맑스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 모튼의 답변은 (4)이다. (Morton 2017, 28-9)

1) 강한 MATT: 맑스가 이미 그것을 생각했어. Marx Already Thought of That=MATT
2) 약한 MATT: 맑스가 빠뜨린 게 있고 그것에 힌트를 줄 필요가 있다
3) FANNI: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은 우연적이지 않다. the Feature of Anthropocentrism Is Not Incidental)
4) ABBI: 인간중심주의는 우연한 버그이다. Anthropocentrism Is a Bug That's Incidental

"인간 본질은 각 개인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그 현실성에서 인간 본질은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이다

Das menschliche Wesen ist kein dem einzelnen Individuum inwohnendes Abstraktum. In seiner Wirklichkeit ist es das Ensemble d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Theses on Feuerbach)》(1845년)

# 마르크스: 류적 존재(Gattungswesen)
##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1.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노동):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과 목적에 따라 자연을 변형하고 창조하는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노동)'을 하면서, 자신을 실현하고, 자연을 자신의 '무기체적 신체'로 만드는 존재.

2. 보편성과 사회성: 인간의 '류적 존재'는 개별적인 인간을 넘어선 보편적인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

3. 자연과의 관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자연을 의식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류적' 본질을 드러낸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기체적 신체'로서, 인간 활동의 대상이자 터전이다.

# 종species의 사유에서 류kind의 사유로

- 종(species): 고정적이고 본질주의적이며 생물학적 개념, 유전적,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류되며 생식적으로 분류되는 특정 생물 집단, 팀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을 명확하고 구분된 범주로 나누려는 시도라고 간주.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모턴은 '인간 종(human species)'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본질을 고정시키고, 정의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예: 장애인, 특정 인종 등)을 비인간화하거나 배제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종species의 사유에서 류kind의 사유로

- 류(kind): 류(species-being)는 원래 마르크스가 사용한 개념으로, 인간이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존재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모턴은 이 '류' 개념을 훨씬 더 확장하고 변형하여 사용. - 우리가 어떤 'kind'인지는 우리가 어떤 'kind'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마르크스의 Gattungswesen(being-species)에서 힌트를 얻음)

Morton 2017,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Books)

# 탈인간중심 경제, Ecocommunism

- 인간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 노동 과정, 그리고 자신의 본질로부터 소외alienation되는 현상을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확대
- 객체가 생산/생성한 객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연결되는 망
- 인간이 사용하고 지배하는 자연이 아닌 비인간과 연대하는 자연의 경제
- 교환가치로 집중화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탈출하여 사용가치를 주목하는 객체(하이퍼객체)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 객체 자체를 물질적이고 비인간적 관계성으로 간주하기
- 공생symbioltic의 탈인간 공동체

# 마르크스주의도 냉소주의 –
# 비판대상인 자본주의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

- 모턴은 특정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이 이러한 냉소주의적 행태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지적하면서, 이 비판은 자본주의를 단일한 '덩어리'로 보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니체식 경향성'을 가진 비판 방식은 언뜻 보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고 말한다. 현실을 단순화하고 파괴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찰스 다윈 진화론에서
선택수준 논쟁

개체 선택

생물학적 이기주의 기반

Spencer의 적자생존과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논리

사회진화론

모든이
보기에
사회진화론은
전형적인
외파적
전체론이다.

집단선택

생물학적이타주의 포용

협동과 상호부조, 도덕성
Alfred 윌리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공동체론

← 내파적
공생론

# 크로포트킨(1842-1921)의 연대 공조

- “이웃집에 불난 것을 보았을 때 나로 하여금 물통을 들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나를 움직인 것은 인간적 연대와 사회성이라는 비록 모호하긴 하지만 훨씬 더 넓은 감정 혹은 본능이다.”(『상호부조론: 진화의 한 요인』(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1902)
- 크로포트킨은 종을 무리와 집단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개별 생명체로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탁월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나 동정이 아니라 연대이다. 비인간들은 이웃으로 사고된다. 상호부조는 목적론적이지 않다. 공생은 목적론적으로 사유될 수 없다.  (모턴2017, 272)

# 크로포트킨의 놀이 playful
# 크로포트킨은 노동과 더불어 놀이 중시

- 크로포트킨에서 놀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지만, 자유, 자발성, 비경쟁, 유다갬, 즐거움 등을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 산토끼들조차 놀고 있는 것 같다. 연대는 놀이를 위한 가능조건이다. 개체들은 구조적으로 미완결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놀려면 연대를 필요로 한다. “비인간적 존재자들을 참작하는 코뮤니즘은 무엇보다 행위이론의 강력히 탈인간중심주의적 다시쓰기를 필요로 한다.”(모턴2017, 273)

# 아나키스트 슈티르너 Max Stirner 1806-1856

1. 절대적 자아를 믿다. - 국가, 교회, 사회, 인간, 규범, 법 같은 추상성 전체를 자유를 억압하는 환상(spook)이라고 부정.

2. 인간이 아닌 '개인' 만이 자신의 유일자 Einzige
-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만 추진하며 나는 자신의 근원

3. 상호의존을 하나가 간섭받을 때 다른 하나도 배제될 우려
- 그래서 비인간 연대가 필요 (노동)

4. Egoist Union - 비인간 연대, 깨지기 쉽지만 우연적이고 유희적인 코뮤니즘

# 모튼의 지구정치학

- 공동체communism운동이 자본주의를 초월하려면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하고 '과잉 채굴하는' 양식을 초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뮤니즘은 자본주의를 보조하는 물류학의 한 형태로 될 뿐이다

# 모턴의 지구정치학

- 인간 관점을 탈피한 사유이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능동적 사유
- 계량화된 “기후변화” 개념을 탈피하면서 사회정치적 “지구온난화” 문제로 접근한다.(23)
- 기후변화 개념은 지구의 자연적인 변화과정의 하나라는 자본우파들 주장에 자칫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24)
- 라투르와 달리 근대인의 궤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 Ecocommunism

- 생태공산주의(Ecocommunism)로의 확장: 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행성적 공산주의(planetary communism), 즉 '생태공산주의'의 정치적 가능성

# 근대인의 실험장치가 아닌 장난감으로 (저주체, 43-4)

-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장난감과 같다. '장난감'처럼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며, 고정된 진리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세상의 모든 것을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우리의 상호작용이다.
- 지구 생태계 파괴는 거대한 '산업 질서' 때문인데, 이 산업 질서를 마치 '견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장난감'처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 도나 해러웨이의 '놀이' 개념과 연결: '놀이'는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굳어진 사회적 틀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놀이 (저주체 중심)

- 상대와 관계맺고 변화하며 서로 조응attunement(조현, 조율)해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저주체의 방식
- 예측불가능성, 고정된 계획이나 권위 억압된 통제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비결정적 방식의 상호작용 , 목적이 없으며 깨지기 쉬운 유연성
- 비규칙성과 혼돈을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 연결과 재조합의 과정
- "놀이"는 단순히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거대하고 이해 불가능한 초객체들의 시대에 저주체로서 우리가 생존하고, 관계 맺고, 변화하며 저항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이자 태도

# 벗어나기 힘들지만 하이퍼객체를 째려보기
# 장난감 놀기의 은유 (저주체, 43-4)

-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며 유동적이라서, 고정된 진리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 지구온난화의 '산업 질서'를 마치 '견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순응하지말고**, **장난감처럼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다루면서**, '장난감'처럼 상호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태도

# 생태훼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만 있나 개인에게도 있나의 논쟁
## - 윤리학과 정치학의 이원론 논쟁 -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태적 훼손에 대한 책임이 거대 기업에게 있다고 논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자기 파괴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생태적 비상사태에 대한 '윤리적' 응답을 위선으로 본다. 하지만 많은 환경론자들과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의 주요회사 엑손모빌이 수십억 배럴의 기름을 퍼 올리는 이유를 두고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생태학적 비상사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적 응답을 위선으로 본다."(하이퍼객체, 323)
- 개인의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에서 위선이라고 함

# 모튼과 (다음 주) 네일

- 모튼은 개별자 모두에게, 네일은 일선에 드러난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환경주의는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자본주의 제품 개물entity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이 나오기가지 거의 모든 지구인이 연관되어 있어서 특정 범위의 사물에 비난하기 어렵다고 모튼은 말한다.